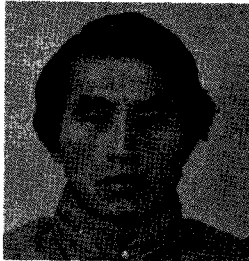


# 낙농육우인의 소리를 행동으로 실천을



김 상 복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623-8

**88년** 은 민주화의 열기속에 양축농민은 수입개방압력앞에 삶의터전을 지키고자 절규와 몸부림의 한해였다.

돌이켜보건대 그토록 힘을 모아 애쓴보람도 없이 쇠고기는 수입되었고 그것도 모자라 89년 물량이 앞당겨 들어오고 있으며 유제품도 소리없이 수입되고 있지 않은가.

집유일원화로 생산자와 가공업자가 다같이 공급의 안정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끝없는 토론으로 결말없이 89년으로 미루어졌고 우유값인상을 각계에 건의하였으나 서로 미루기만하고 오히려 정부에서는 1kg 생산비 302원이라니!

일반물가는 올라도 우유의 생산비는 내려가는 특별한 조치라도 있었는지?

지난과거를 질책하기에 앞서 협회를 이끌어가는 우리모두가 스스로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89년은 모두가 원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우선 지역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낙농육

우인들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협회를 활성화시킬수있는 헌신적 지도자가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또한 뚜렷한 목표아래 끈질긴 집념으로 용기있게 밀어부칠 사람이면 더욱좋다.

금년은 지난해의 어수선했을 모두 정리하고 생존권이 수호되는 가운데 안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쇠고기수입은 중단되어야 하며, 수입쇠고기판매에 혈안이되어 농민의 원성대상이된 축산물유통사업단은 뿌리채 없어져야하며 부족되는 쇠고기는 돼지, 닭고기로 대체하면 농민모두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값비싼 배합사료에서 사료곡물구입 자유화로 자가배합 사료로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우유값도 1kg 생산에 302원은 철회하고 생산자가 제시한 인상안을 신중히 검토 20%이상 인상되어야하며 말로만 집유일원화를 외치지 말고 현재의 뒤 영킨 집유노선을 눈여겨보며 생산과 보호차원의 집유일원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위에열거한 모든것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는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모두가 살길은 이것뿐이라는 굳은 각오로 열심히 끈질기게 힘의 원천을 만들었을 때 소기의 성과는 돌아올것이다.

금년은 낙농육우협회의 새로운 임직원이 탄생과거를 답습치말고 "낙농육우인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우리모두에게 꼭 필요한 "대변인"이 되어줄것을 부탁드리고자 한다. ■